영농인력 적재적소에 20만명 중개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서홍·앞줄 왼쪽 네 번째)가 지난 7일 신안 임자농협에서 '영농지원 및 인력지원 발대식'을 열고 부족한 농촌 일손을 해결할 것을 다짐했다. 〈전남농협 제공〉

농협 전남본부, 영농인력 지원 발대식…전년비 2만명 증가
35개 인력중개센터 운영…농촌봉사·농기계 지원 등 노력도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전년보다 2만명 늘어난 20만명 영농인력을 중개하기로 했다.

농협 전남본부는 지난 7일 신안 임자농협에서 '영농지원 및 인력지원 발대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4월 영농철을 맞아 풍년을 기원하고 농촌인력지원 봉사활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전남지역본부와 목포·신안지역 농협 임직원이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전남농협은 농촌 일손부속 해결을 위해 2000만원 상당 육묘파종기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올해 전남농협이 지역 145개 농·축협에 중개하려는 영농인력은 총 20만명이다. 이는 전년 실적 18만명보다 2만명 늘어났다.

농협 인력중개센터에 동참하는 지역농협은 전년 31개에서 올해 35개로 증가했다.

지난해 이들 인력중개센터는 12만명 상당 인력을 유상 중개했다.

아울러 농협 임직원 5만5000명이 영농지원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지역 대학생 등 사회봉사자 5000명도 일손을 거들었다.

전남농협은 인력중개 외에도 지난 2017년부터 농기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전남 농촌에 농기계를 지원해 부족한 일손을 대체하기 위해서다.

매년 지원하는 농기계는 40억원 상당이다.

지난해에는 전남지역 146개 농·축협에 88억원 상당 농기계를 농촌에 지원했다. 1차 38억원에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5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올해도 이들 농·축협에 31억원 상당 지원이 예정돼 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농촌지역의 영농인력이 줄어들고 있어 영농 기계화와 영농인력의 적기 공급이 절실하다"며 "농촌 영농인력중개와 농기계 지원 등을 통해 영농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19일까지 공모

상반기 20곳 내외 지정

전남도가 2022년 상반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 단체를 오는 19일까지 공모한다.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을 발굴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지사가 지정한다.

올해 상반기 지정 규모는 20곳 내외로,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단체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인증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혜택도 있다.

지정을 바라는 기업은 19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접수하면 된다. 전남도는 시·군, 지원기관과 함께 서류 검토,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후 최종 선정 결과를 6월 중순까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에는 총 346개 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지난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8개사를 지정,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에너지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추진

녹색에너지연구원 공모
판로 개척·기술지도 등

(재)녹색에너지연구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번 과제는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전남 블루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그린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 사업으로는 기업브랜드 강화를 위한 제품 고급화, 디자인 및 마케팅 강화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전문가 기술지도 등을 추진하게 된다.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도내 에너지기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로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며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춘진(왼쪽 두 번째) aT 사장이 목포 농업회사법인 ㈜고기마을(대표 봉성현·맨 왼쪽)을 찾아 친환경 축산가공을 논의하고 있다. 〈aT 제공〉

aT, 친환경 축산가공식품 활성화 방안 모색

김춘진 사장 축산가공업체 방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김춘진 사장이 지난 6일 목포 친환경 축산가공식품 업체를 찾아 저탄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사장은 목포에 있는 육류 가공업체 ㈜고기마을을 찾아 친환경 축산가공식품 육성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고기마을은 지난 2018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취득했다. 친환경 인증 농가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무항생제 돼지고기만을 가공해 학교 급식과 마트 등 전국으로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항생제 곰탕 즉석 식품(레토르트 식품)을 개발해 한국의 맛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벼 정부보급종 '미소독 종자'로 공급…"온탕·침지 소독 권장"

소독종자 소독비용 추가 부담
국립종자원 소독 방법 공지

국립종자원은 올해부터 벼 정부보급종을 소독이 되지 않은 '미소독 종자'로 전면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벼 키다리병을 예방하기 위해 종자 겉면을 소독처리한 뒤 공급해왔다. 하지만 농가에서 종자를 받은 후 재차 온탕·침지(약제에 담가 적심) 소독하는 경우가 일반화되면서 소독 종자를 공급할 필요성이 낮아졌다.

종자를 온탕 소독하는 과정에서 겉면에 있던 소독약제가 물에 씻겨나가고, 이후 침지 소독 시 소독약제를 추가로 투입하게 돼 소독효율이 낮았다.

이에 정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미소독 종자를 공급해 약제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소독효율도 높일 방침이다.

다만 미소독 종자를 수령한 후 적절하게 소독하지 않으면 종자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온탕·침지 소독을 병행할 것을 권장했다.

소독종자는 미소독종자 공급가격에 소독약제 처리 비용이 추가된 금액으로 공급된다. 지난해 기준 미소독종자 가격은 20㎏당 4만9170원이었으며, 소독종자는 5만1150원이었다.

자세한 소독 방법은 국립종자원 블로그(url.kr/oedgw7)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탕 소독할 때는 종자를 종자망에 옮겨 담아 보급종 20㎏당 60도 200ℓ의 물에 10분간 담근 후 꺼내어 10분간 냉수 처리하면 된다.

약제 침지 소독은 보급종 20㎏당 약액 40ℓ를 기준으로 하며, 물 온도 30~32도에서 24~48시간 동안 담가야 소독 효과가 높다. 이후 1~2㎜ 정도 싹이 튼 것을 확인하고 파종하면 된다.

국립종자원은 모내기가 완료되는 시기까지 전남지원 등 전국 8개소에 벼 정부보급종 민원 전담팀을 구성해 전염병 예방요령을 지도하고 육묘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피해 상황 단계는 평시→주의→경계→심각으로 나뉜다. 읍·면·동 단위 종자결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의' 단계를 밟아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종자피해조사반을 구성해 피해 조사를 벌인다. 시·도 단위 피해가 발생하는 '경계' 때는 도 농업기술원과 조사반을 구성하며 '심각' 단계에서는 국립종자원와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10명이 민원에 대응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 해광, 샹그릴라 APT

- 선암동, 공105㎡ 전82㎡
- 10층, 101동, 남향, 조망 좋음
- 즉시 입주가.
- 매매 – 4억 5000만원 (일시불 조정가)

2. 신안동, 상업용지

- 대지 582㎡, 알반 상업 지역
- 오피스텔 허가 득, 최고요지
- 매매 – 21억

3. 대인동, 상업용지

- 대지 515㎡, 알반 상업 지역
- 롯데백화점 부근
- 매매 – 19억

4. 오피스텔, 급매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계 108㎡, 전 67㎡
- 내부깨끗, 창가쪽, 전망 좋음
- 매매 – 1억 1000만원

회사 사정상 "정리" 합니다. 문의 010-3605-5000